

태국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 주태국 스위스 연방 대사 및  
주태국 노르웨이 왕국 대사의 예방 접견하였다

입력 2020.10.19



추안 릭파이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10월 19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사당 3층 국회의장실에서 H.E.Mrs. Helene Budlinger Artieda 주태국 스위스 연방 대사 및 H.E.Mrs.Kjersti Rodsmoen 주태국 노르웨이 왕국 대사를 만나 이번 11월 23일에 유럽자유무역연합 (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: EFTA) 의회위원회와 국회의장 가상 회의 (Virtual Meeting) 에 대해 논의했다.

오는 11월 23-27일간 Mr. Svein Roald Hansen 유럽자유무역연합 의회위원회의 회장과 18명 대표단은 태국 관련 위원회와 무역 및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러 태국에 공식 방문할 예정이었다.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심각해져 대신 가상 회의로 변경한다. 이 회의에는 노동위원회 상무 및 지식재산위원회, 산업위원회의 회장들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.

추안 의장은 “태국국회가 2013년 10월 2일에 태국-유럽자유무역연합 초안 프레임워크협정을 동의했으며 태국 국회와 유럽자유무역연합 의회위원회 가상 회의 진행을 협조한다”고 말했다. 이는 재무부 무역협상국가 유럽 자유무역연합과 협상 회복 전 이익 및 영향을 연구하는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구하고 결정할 것이다. 한편 이번 예방에는 잇사라 순톤왓 하원의원을 비롯해 위왓 몽간디 하원의장고문 및 시리파 인타라위치안 하원의장 보조비서가 우리 측 인사로 참석했다.

이어, 이번 11월 23일에 유럽자유무역연합 (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: EFTA) 의회위원회와 국회의장 가상 회의 (Virtual Meeting)는 오후 1시 또는 4시 30분 중에 선택하여 당일 3시에 재무부와 가상 회의할 예정이다.

스위스 연방은 태국의 15 번째 무역 상대국이며 아세안에서 싱가포르 다음에 이은 2 번째를 차지한다. 이에 더하여 스위스는 태국에서 12 번째에 투자하는 국가이며 대부분이 전기통신 산업이다. 한편 노르웨이 왕국의 경우 태국과 무역 사례는 계속 상승하면서 태국으로 해산물 및 비료를 수출한다.

기자/편집: 태국하원사무처

번역: 완위문 마우탑,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

[https://www.parliament.go.th/ewtadmin/ewt/202006/view\\_news.php?n\\_id=73499](https://www.parliament.go.th/ewtadmin/ewt/202006/view_news.php?n_id=73499)